

4~5일 제주도 강하고 많은 비

- 강풍·풍랑, 천둥·번개, 해안가 월파 유의



[5월 4일(목)~5일(금) 예상 기압계 모식도]

- 제주지방기상청(청장 전재목)은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3일(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어 6일(토)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특히, 4일(목)과 5일(금)에는 제주도에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오겠고, 강한 바람과 해상에는 높은 물결, 해안가 월파가 예상된다고, 상세한 기상전망을 발표하였다.

[강수 전망]

- 제주지방기상청은 3일(수) 늦은 오후부터 6일(토) 오전까지 산둥반도 부근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에서 유입되는 매우 강한 남~남서풍에 의해 많은 양의 수증기가 제주도로 유입될 것으로 분석하였다.
- (호우) 3일(수) 늦은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저기압이 북동진 하면서 점차 남풍이 강하게 유입되는 4일(목) 오전부터 제주도산지와 남부에는 5일(금)까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따라서,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하천변 등 침수 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리거나 고립될 수 있으며, 상류에 내리는 비로 인해 하류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겠으니, 시설물관리와 안전사고, 등산객 또는 야영객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 또한, 5일(금) 어린이날에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야외행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예상 강수량(3~4일) >

○ 제주도: 30~80mm(많은 곳 산지 120mm 이상)

※ 6일(토)까지 예상 강수량은 내일(3일)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설명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안개) 한편, 비가 오는 곳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으로 짧은 곳이 있겠고, 내린 비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으니, 차량 운행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변동성) 이번 강수는 저기압의 발달정도와 이동경로에 따라, 강수시간과 강수량, 강수집중구역에 대한 변동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풍과 풍랑 전망]

- (강풍) 4일(목) 새벽부터 6일(토) 오전까지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풍랑) 3일(수) 밤, 제주도남쪽먼바다를 시작으로 4일(목)에는 제주도 전해상으로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물결이 2~4m로 매우 높게 일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또한, 4일(목)부터 6일(토) 오전 사이 제주도전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하였다.
- (높은 해수면) 5일(금)과 6일(토)에는 해수면의 높이가 높은 기간으로, 만조 시간(밤 사이)에 해당하는 제주도 해안에는 평소보다 해수면의 높이가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 따라서, 해안가 월파로 인한 저지대 침수와 해안가(해수욕장), 갯바위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유의사항) 6일(토)까지 강한 바람에 의한 안전사고 및 비닐하우스, 간판과 같은 야외 시설물에 대한 점검 관리와 높은 파고와 너울에 의한 해상 및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항공기와 선박편의 운항에 영향이 예상되니, 사전에 운항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장은 “4일(목)과 5일(금)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일고, 해안가 월파 등 위험기상이 예상되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의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과	책임자	과 장	김충기 (064-909-3920)
		담당자	전문관	한경훈 (064-909-3920)

제주 전역 호우경보·강풍특보...5시간 만에 100mm 넘겨 '폭우'

출고시간 | 2019-05-18 05:29

고성식 기자
기초리porter

한라산 169mm, 서귀포시 110mm...침수·저지대 피해 예방 '주의'



물에 잠겨 통제된 도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18일 제주 전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져 피해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지방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전 5시 현재까지 한라산 성판악 169mm, 삼각봉 156.5mm, 윗세오름 110.5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또 같은 시간 서귀포시 태동센터 110mm, 지귀도 110mm, 제주시 송당 100.5mm, 선흘 85.5mm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4시 25분까지 제주도 북부와 동부의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 산지와 남부를 포함해 호우경보 발효 지역을 제주 육상 전역으로 확대했다.

또 추자도에 발효한 호우주의보를 유지했다.



급류로 변한 제주 도심의 병문천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기상청은 제주 육상 전역에 강풍주의보도 내렸다.

기상청은 관계자는 "낮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 당 20~4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면서 "모래(20일)까지 호우가 이어져 제주도 산지에는 최고 300mm, 제주도 동부와 남부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한 바람과 함께 내리는 폭우로 인해 이날 제주국제공항의 항공편 운항도 차질이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제주 상습침수 등 위험 지역이 있을 경우 대피해야 하며 외출 자체 등 안전에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주도 모든 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연바다 등 해상은 풍랑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해상에 파도가 높은 데다 오는 21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유의를 바랐다.

제주 한라산 482mm·서귀포 466mm 폭우...항공기 113편 지연 운항(종합2보)

등록 2019.05.18 18:51:19

이웃
공유
댓글
가



기상청 "남쪽 해상 지나는 저기압과 강한 하층 바람 영향" 제주 소방본부, 주택·도로 침수 및 강풍 피해신고 7건 접수 제주도 전역·전 해상 강풍·풍랑 특보..."20일까지 강한 바람"



【제주=뉴스1】18일 오후 6시 현재 제주도 전역과 전 해상에는 강풍 풍랑 특보가 발효 중이다. (사진=뉴스1DB)

【제주=뉴스1】조수진 기자 =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폭우가 이틀간 이어지며 제주 산간과 서귀포 지역은 400mm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다.

이날 지난 17일부터 18일 오후 4시 현재까지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제주시 선흘(북부) 255.0mm, 서귀포시 신례(남부) 466.0mm, 서귀포시 송당(동부) 416.0mm, 서귀포시 대정(서부) 67.5mm, 한라산 성판악 432.0mm, 한라산 삼각봉 482.5mm, 추자도 97.5mm 등이다.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제주 전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으나 현재 산간과 남부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다. 다른 지역은 5mm 이하의 약한 비가 내리거나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강한 하층 바람이 동반되면서 산간과 남부 지역에 400mm가 넘는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현재 제주도 전역에 강풍주의보, 제주도 남쪽연바다의 동부연바다에 풍랑경보, 동부를 제외한 모든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있다.

전날부터 계속된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도 차질을 빚고 있다.

윈드시아·강풍 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국제공항의 오후 6시 기준 지연 항공편은 모두 113편(출발 99편·도착 14편)이다.

제주에 400mm 넘는 비 내려...항공기 100여편 지연(종합)

도로·주택 침수 등 7건 신고...인명피해는 없어 호우특보 모두 해제...강풍주의보·풍랑특보 발효 중

(제주=뉴스1) 고희영 기자 | 2019-05-18 17:32 송고

댓글

이웃
공유
댓글
가



뉴스1DB © News1

18일 제주에 많은 비와 함께 강풍이 불어 항공기 운항이 일부 차질을 빚었다.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제주 전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됐다.

오후 4시 기준 한라산 성판악에는 432.0mm, 삼각봉 482.5mm, 윗세오름 406.5mm의 비가 내렸다.

선흘(북부) 255.0mm, 신례(남부)466.0mm, 송당(동부)416.0mm, 대정(서부)67.5mm, 추자도 97.5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제주도 남쪽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강한 하층 바람이 동반되면서 산지와 남부 중산간 지역에는 4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는 이번 비로 인해 도로와 주택 침수 등 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